조선대-한전KDN 'AI·SW 교육'…지역아동 디지털 격차 해소

'코딩으로 여는 1일 탐험대' 운영
로봇 코딩·생성형 AI 체험 '호평'

조선대학교SW중심대학사업단(단장 변재영)이 한전KDN과 손잡고 지역 내 정보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찾아가는 AI·SW 교육을 진행해 ESG 가치 실현에 앞장섰다.

5일 조선대에 따르면 조선대 SW중심대학사업단 산하 SW지역사회성과확산센터는 최근 한전KDN과 공동으로 광주 지역 아동센터를 순회하며 '코딩으로 여는 1일 탐험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주최하고 조선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 주관했으며, 대학의 전문 교육 인프라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이 더해진 산학 협력 모델로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평소 디지털 교육 환경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 아동들에게 양질의 AI(인공지능) 및 SW(소프트웨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연제지역아동센터,,좋은친구지역아동센터, 글로벌지역아동센터 등 광주 관내 아동센터 3곳을 선정해 릴레이 교육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전문 강사진과 함께 노트북, 최신 로봇 교구 등이 투입돼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교육은 아동들이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초기 교육에서는 '거북이 로봇'과 '알버트 로봇'을 활용한 코딩 실습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의 기초를 다졌으며, 이어지는 심화 교육에서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인공지능 이해와 공감의 기술',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AI 창작 활동'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 수업을 제공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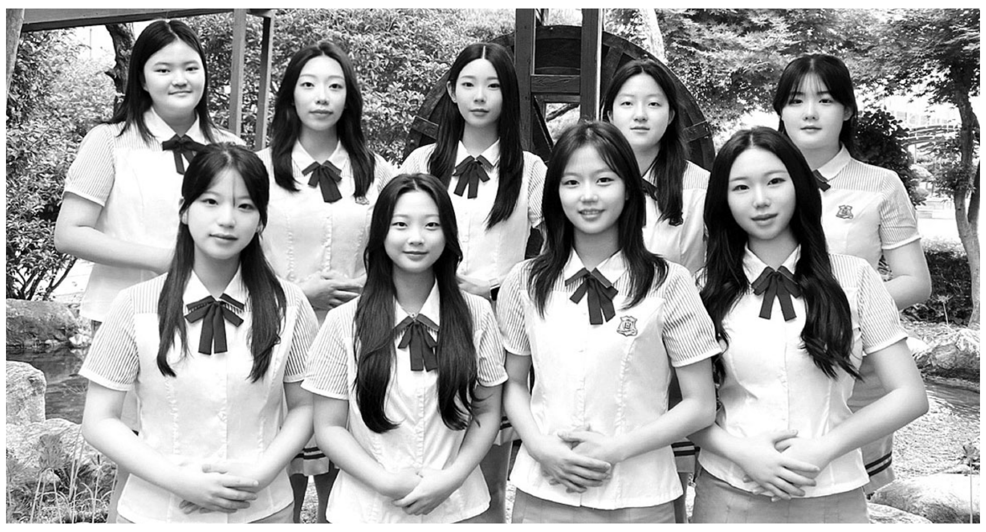
특히 이번 협력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이 함께 교육 커리큘럼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내 디지털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실제 참여 아동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99%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교육 효과를 입증했다.

변재영 조선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장은 "한전KDN과의 협력은 대학의 교육 역량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스며들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좋은 사례"라며 "정보 소외계층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교육 나눔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향후 학년별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AI 프로젝트를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SW지역사회성과확산센터는 최근 한전KDN과 광주지역 아동센터에서 '코딩으로 여는 1일 탐험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선대 제공〉


2025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 합격한 전남여상 학생들. 윗줄 왼쪽부터 나윤서(윗줄 왼쪽부터)·김시은·안수빈·김나영·김다희양, 이윤주(아랫줄 왼쪽부터)·이세희·김하은·이채리양. 〈전남여상 제공〉

전남여상, 국가직 공무원 9명 '전원 합격'

지역 인재 9급…누적 74명 기록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 전남여상)이 '2025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응시 학생 9명 전원이 최종 합격했다.

5일 전남여상에 따르면 전남여상 김하은(3학년) 학생 등 9명은 지난 3년간 교내 '공무원반'에서 시험 준비에 매진해 왔으며, 지난 8월 필기시험에 이어 12월 최종 면접까지 통과하며 전원 합격했다.

이로써 전남여상은 15년 연속 공무원을 배출했고 누적 합격자 총 74명을 기록했다.

합격생 김하은(3년)양은 "학교에서 제공한 맞춤형 스피치 훈련과 실전 모의 면접 덕분에 실제 면접장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며 "사교육 없이 방과 후 수업만으로 취약 과목을 보완하며 최종 합격의 꿈을 이뤄 더 기쁘다"고 밝혔다.

전남여상은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공무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반은 필기 과목별 심층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해 사교육 없이 합격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전문가 피드백과 맞춤형 스피치 훈련 등 체계적인 면접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이 실전에서 본래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돕는다.

전남여상 최규명 교장은 "이번 전원 합격은 학생들의 열정과 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가 어우러진 소중한 성과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금융권 등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꿈을 이루도록 맞춤형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광산고 신축공사 '첫삽'

내년 3월 개교 목표…광산구 과밀학급·원거리 통학 개선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최근 광산구 하남동 135번지에서 이정선 교육감, 강기정 광주시장, 명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광산고등학교 신축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광산고 신설은 광산구 지역 숙원사업으로, 학령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흐름 속에서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높은 문턱을 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다.

시교육청은 광산고 설립에 대한 지역민의 염원이 큰 점을 고려해 지난 2022년부터 교육부와 꾸준히 협의하고 광산구 고등학교 신설 TF를 구성하여 가동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펼쳐왔 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폐교부지 활용해 300억 원 미만 사업비로 학교를 설립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와 총사업의 용지비 제외 등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과 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광산고는 총 293억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8천559㎡ 규모로 설립된다. 개교 목표는 오는 2027년 3월이다.

시교육청은 광산고가 문을 열면 고등학교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산고등학교가 문을 열면 광산구 교육환경 불균형에 대한 민원이 해소되고, 교육 수요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며 "오는 2027년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지역 자동차산업 이끌 혁신 인재 육성

RISE사업단, GGM과 MOU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지역과 대학,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산학 네트워크를 통해 광주 자동차 산업을 이끌 혁신적인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동강대 RISE사업단은 최근 본관 1층 장원홀에서 국내 제1호 상생형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앞으로 동강대는 광주 완성차 산업을 대표하는 GGM과 함께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등 성공적인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에 앞장선다.

동강대는 지난 2022년 4월 이민숙 총장과 전기?미래자동차과를 비롯해 총학생회 학생들이 GGM을 방문해 스마트팩토리 생산라인과 '캐스퍼 1호'를 구경하며 미래 AI기술력을 갖춘 인재의 꿈을 키웠다.

당시 동강대 방문이 2019년 12월 출범한 GGM의 첫 외부 견학 행사였다.

동강대 이민숙 총장은 "GGM과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김민종 본부장은 "동강대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함께 키우고 RISE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산업과 교육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고3-대학 연계 '꿈키움캠퍼스' 운영

전남교육청이 학생의 진로·전공 탐색과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고교·대학 연계 공동 교육과정 '꿈키움캠퍼스'를 운영한다.

오는 26일까지 운영하는 꿈키움캠퍼스는 예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총 16강좌에 총 22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도서 지역 및 소규모 학교 학생에게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했다.

꿈키움캠퍼스는 과목의 성격과 운영 여건에 따라 온라인 수업, 대면 및 비대면 수업 혼합(블렌디드 러닝), 합숙형으로 운영 형태를 구분했다. 총 16과목 중 온라인 5강좌, 블렌디드 및 합숙형 11강좌로 운영한다.

이론·탐구 중심 과목은 온라인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대면 활동과 실기·실습이 필요한 과목은 블렌디드와 합숙형으로 학습의 깊이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13일부터 16일까지는 국립목포대학교·국립순천대학교·조선대학교에서 합숙형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미술전공 실기, 무용과 몸, 연극 제작 실습, 만화 콘텐츠 제작 등 전문교과·실습형 수업을 진행한다.

박철완 전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꿈키움캠퍼스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전공과 연계된 학습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라며 "실습형 전문교과를 합숙형으로 집중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이 전공 적합성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